

[ 사회 ]

# 理事없는 조선대 운영 차질 우려

## 새 이사 선임 못하고 임기 만료... 사학분쟁위 조정 능력 한계 노출

정이사 체제전환을 추진해온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정이사 선임 지연과 임시 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1일부터 이사가 단 한명도 없는 '이사 부존재 사태'를 맞았다.

조선대 현 임시이사진 7명의 임기는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조선대 정상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는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이날까지 정이사 체제 전환이나 새 이사 선임 등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선대 법인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

된 것은 지난 1월,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당시 교육부는 이들 이사들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했으나, 사학분쟁조정위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사 부존재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발족한 이래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회의 외에도 열 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임시이사 임기 날짜를 넘겼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조선대 법인 김용채 이사장과 전호중 총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상 정상화 방안은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의사가 없는 전 경영진의 의견 진술을 기다리며 6개월 동안 의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명백히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 부존재' 상태가 되면 조선대 법인에서 이사진들이 했던 일들은 일

단 '울스'된다.

달리 전 경영진 측은 3차례에 걸쳐 사학분쟁조정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선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일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기피 심정을 제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가 이들 비리집단과 유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정상화 노력과

법인 정관 31조에 따르면 이사회 기능은 ▲법인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의결이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 정관수 팀장은 "새 이사 선임이 늦어 정관수에 모자라는 이사진으로 구성되는 예는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로 보긴 힘들다"며 "조선대의 경우 역시 대법원 관례에 명시된 '긴급사무처리권' 등을 통해 일상 업무는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사학분쟁조정위 회의는 오는 3일 열린다. 하지만 새 이사 선임이 어려워 힘들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정 팀장은 "이번 회의에서 뭔가 결정될 수 있을지는 위원들만이 안다"며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위원들이 최대한 열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다시 온 장맛비

7월 1일 (음 5월 28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려져 비	20~26℃
주요	흐려져 비	20~24℃
여수	흐려져 비	19~24℃
완도	흐려져 비	19~25℃
구례	흐려져 비	18~26℃
해남	흐려져 비	18~25℃
홍천	흐려져 비	18~25℃
고흥	흐려져 비	18~26℃
영광	흐려져 비	18~25℃
진안	흐려져 비	19~24℃
남원	흐려져 비	20~25℃
전주	흐려져 비	19~27℃
남창	흐려져 비	19~27℃
원주	흐려져 비	17~21℃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2.0m  
남해동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5m  
만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0:12 썰물 < 05:49  
12:09 썰물 < 17:43  
여수 밀물 < 07:14 썰물 < 01:22  
20:06 썰물 < 13:20

▲해돋이 05:22 ▲해질 19:51 ▲달돋이 02:49 ▲달질 18:13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1/24	21/27	21/30	22/29	22/29	22/30

## 가짜 한우 판매 광주 음식점에 시민 30여명 보상 요구키로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광주 한 음식점(본보 5월8일자 8면) 보상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광주경찰서와 광주 YMCA 등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시내 상무지구의 한 식당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최근 모집한 결과 총 30여명이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해당 음식점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상품권, 포인트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피해자 모집은 해당 음식점이 적절한 보상책 마련 등 승의를 보이

지 않는 데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상요구 방법을 찾지 못해 이를 돕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서와 YMCA는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음식점에 보상을 직접 요구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이 식당은 지난 4월 20일부터 보름여 동안 미국산 쇠고기 480kg을 한우로 속여 판 사실이 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종행기자 golee@

### 조선대학교 법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를 즉각 선임하라!!

■ 일시 : 2008년 6월 30일(월) ■ 장소 : 본관 2층 소회의실

조선대 김용채 이사장과 전호중 총장 등 조선대 구성원들이 지난달 30일 조선대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 심의·의결과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선풍기 질식사·화재 '주의'

### 수능 모의평가 9월 4일 실시

200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모의평가가 9월 4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발표하고 7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달 4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해 11월 본 수능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 육·해·공군 병 모집 병무청으로 일원화

1일부터 육·해·공군의 병(兵) 모집 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

병무청은 "지난 27일 해·공군과 업무 인수인계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 군의 병 모집 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육군 병은 2003년부터 병무청에서 모집했으나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각 군에서 따로 모집함에 따라 병역의무자 불편과 업무의 비효율을 따라 병역의무자 불편과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여름철 사고 잇따라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로 인한 질식사나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잘 경우 질식사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광주시 광산구 도원동 N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잠을 자던 직원 이모(35)씨가 숨져있는 것을 주인 정모(46)씨가 발견했다. 경찰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씨를 깨우기 위해 이날 오전 음식점 안에 들어가 보니 이씨가 얼굴 방향으로 선풍기를 켜놓은 채 누워 있

었다"는 진술에 따라 선풍기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광주광산경찰 관계자는 "잠들거나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얼굴 쪽에 켜 놓고 자게 될 경우 '중증 저체온증'에 이르러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2건이다. 지난해 여름철(6~8월)에는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밤 9시58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A원룸에 사는 박모(44)씨의 집에서 선풍기 장시간 사용에 따른 모터 과열로 불이나 내부면적 29.7㎡를 태우고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동구 소태동 M중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학생들은 선풍기 전원을 켜둔 채 야외 체육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선풍기를 사용할 땐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하고 타이머와 팬 등 이상 여부 점검해야 하며 승인받은 제품(KS 마크 등)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우리 동네 날씨 알 수 있다

#### 10월부터 읍·면·동 단위 예보

10월부터 읍·면·동 단위의 동네예보제가 시행된다. 기상청은 지난달 30일 "동네예보는 현행 시·도 단위 예보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 단위의 세부 지역별로 예보하는 제도"라며 "10월부터 기온과 습도, 바람, 하늘상태 등 12가지 기상요소를 1일 8회에 걸쳐 그래픽과 문자, 숫자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 기상정보는 3시간 단위로

향후 2일동안의 예보를 통해 서비스된다. 기상청은 동네예보를 도입하기 위해 2003년 추진기화단을 구성한데 이어 미국 등 기상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2004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예보시스템을 개발해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2005년 10월부터 시험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굴 확인 가능

#### 신상정보 공개 수위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또는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경찰서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지난 2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8명 가운데 법원이 공개·열람명령을 내린 5명이다.

새 정보열람 시스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이름과 나이, 직업은 물론 집과 직장 주소도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되며, 범죄사실도 6차 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연합뉴스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KUNJIN 국제약품 http://www.kunjin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병복합  
- 동맥경화, 심전도 이상, 당뇨, 혈관 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과 시력 저하, 안염  
- 탈모, 피부미용, 기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노년층의 건강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 심근경색, 뇌졸중, 허혈성 질환  
- 심근경색, 뇌졸중, 허혈성 질환  
- 심근경색, 뇌졸중, 허혈성 질환

아연의 보충  
\*아연은 면역기능을 높여줍니다. (1997년 WHO 발표)